

# 강진군,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으로 소 치료비 부담 경감



## 농가 25%만 부담...올해 8600두 분량 예산 편성 강진완도축협 통해 선착순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

강진군은 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의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하는 가축질병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수의사의 진단과

치료비용을 약정에 따라 보험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소 8,600두 분량인 지방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보험 가입신청은 강진완도축협(☎

061-430-2809)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농가는 사육하는 소 전체를 가입해야 한다. 다만, 연간보장한도액 80만원 미만 이 되는 소 8두 이하 사육농가와 축산업등록(허가)되지 않은 농가는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군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 8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정성을 다

해 키우던 소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치료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미리 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7농가(소 3,329두)가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가입해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가입농가의 73%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올해 장학·교육사업 13억 지급

지난 2008년부터 총 73억원 지급...현재 111억원 적립



진도군은 (재)진도군인재육성장 학회가 올해 장학·교육사업에 13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최근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갖고 올해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인재육성 장학금 5억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7억원 ▲보편적 교육사업 1억원 등이다. 특히 대학 신입생 장학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 전원에게 100~150만원을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진도군민과 향우들의 참여로 현재 111억원의 장학기금이

적립되어 있다. 그동안 장학금 23억원, 명문고 육성 12억원, 교육경비 32억원 등 73억원을 지급했다.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에듀택시 지원 등 재정적 문제점이 학생들에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속에도 많은 후원자가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진도군의 인재 육성을 위한 초석의 발판이 됐다"고 "기탁된 소중한 장학금은 보배섬 미래 100년을 이끄는 진도군의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 후원과 동참을 당부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완도군, 통합방위 국무총리 표창 수상

완도군이 국방부 통합방위본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방위 평가 결과,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4일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2021년 전라남도 통합방위 회의'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통합방위 유공 우수 기관은 매년 지자체, 군부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 점검을 통해 선발한다. 완도군은 지난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예비군 육성지원,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정보공유체계는 각종 재난·재해 상황 시 드론을 활용하여 확보한 영상을 군·경·소방 등에 공유하여 재난 예방활동과 미상 선박 및 밀입국자 검거 등 통합방위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 드론 시스템이 통합방위태세 역량 평가에서 높이 인정받았다."면서 "군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 해남군,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해남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군은 해남읍 일대 15만 4,000㎡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읍 원도심 재생, 아이와 공동체의 미래를 키우는 행복살터 해남의 비전 아래 읍 5일시장과 매일시장 등 전통시장을 지역 커뮤니티·창업·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화거리를 조성, 상

### 사업비 142억원 투입해 해남읍 노후주거지 정비 등 실시

### 원도심 체계적 관리 복합거점 조성 등 맞춤형 인프라 구축

해남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해남읍 고도리 일원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진행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군은 '시장·길·천이 아름다운 해남

권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원도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환경 및 골목환경 개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사업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시작으로 골목길 개선을 위한 '안심 고살길' 조성이 추진된다. 또한 육아나눔공간이자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서는 '아이랑 사랑방' 조성, 오일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해남 오거리 정원' 조성, 해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카페 등 주민공유공간인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이를 위한 안심 고살길 디자인 공모와 주민제안 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시장축제 및 이벤트 등도 진행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은 민선7기 군민과 약속했던 핵심 공약사항으로 낙후된 읍 시가지의 원도심 기능을 회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해남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 장흥 부산면, 버스 승강장 일제 정비...교통편의 도모

부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버스 승강장의 노후된 운행 시간표로 운행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장시간 기다리기 불편하다는 등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운행표를 새롭게 제작·부착했다.

또한 부산면 공무원과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지역 내 27곳 승강장에 불필요한 광고 전단지 제거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해 쾌적하고 편안한 승강장이 되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김소향 부산면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쾌적한 승강장 환경을 만들어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장흥군, 가로수 등 병해충 방제로 수목 활성화

장흥군은 병해충으로부터 관내의 수목들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집중 방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병해충 방제는 생활권과 가까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가로수 15

만 그루와 보호수 144그루, 10개 읍면 소공원을 대상으로 살충제와 영양제를 혼합하여 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장흥=김도영기자

